

<독일 탈원전 경위와 현황>에 대한 토론문

강원대학교 교수 성원기

의미있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탈핵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나라로서 독일의 탈원전 경위와 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들을 수 있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독일 반핵운동이 70년대에 핵발전소 건설반대,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반대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에 반핵시민운동 단체, 지역주민들의 활동과 역할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연방의회 차원의 앙케트위원회를 설립하고 1979-1983 미래 원자력 정책, 1987-1990 지구대기 보호방안, 2000-2002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녹색당이 1983년 연방의회에 진입하고 98년 사민당-녹색당 연정 탄생으로 반핵정당이 다수가 되고 원전폐쇄 합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국회내에 법적인 기구로 탈핵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스리마일 핵사고, 체르노빌 핵사고, 후쿠시마 핵사고가 독일의 탈핵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1.5 윤리위원회 보고서에 나타난 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오래된 원전등 8기를 폐쇄하고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최종폐쇄시점을 원자력법에 명시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탈핵기본법을 제정하고 탈핵로드맵을 법에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독일도 탈핵을 실행하면서 핵산업계의 반발도 만만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